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수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심덕섭 고창군수가 12일 고수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고수농공단지는 남고창 IC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원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작에 앞서 군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사업, △고창군 기업 ESG 경영 지원 구축사업을 안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적기준점 7803점 일제 조사 시행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적기준점 7803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토지이동과 토지 경계, 분할 측량 등의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교량 등에 설치한 표지로, 위치 좌표와 표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적삼각점(2~5km 간격), 지적삼각보조점(1~3km 간격), 지적도근점(50~300m 간격)으로 구분된다.

지적기준점은 주로 도로·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도로 굴착,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망실·훼손 등이 발생 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망실·훼손 지역 등에 지적기준점을 복구하고, 추가로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신설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예산 신청

정읍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과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부안군, 노후생활 보장·노인 건강 유지 등 위해

부안군은 관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이다.

군은 올해 서비스 대상자를 2055명으로 늘려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

생활 지원 필요가 큰 중점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관내 민간 수행기관 2개소(부안노인복지센터,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총 9명의 사회복지사와 137명의 생활지원사가 안전 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

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취약노인에게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은 12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김철태 고창부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 주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고창, 특별법 활용 사업발굴 박차

김철태 부군수 "지역 발전 견인할 미래먹거리 찾아야"

김철태 고창부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고창군 발전을 이끌어갈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12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김철태 고창부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 주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전북특별법 시행(2024년 12월 27일)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특례와 연계한 고창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로, 특례별 사업계획, 쟁점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주요 사업에는 △고창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 조성사업 △방장산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 등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사업들이 검토됐다.

김철태 부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발굴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구체화해서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며 "전북특별법 2차 후속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155명 신입생 입학식 개최

복분자·스마트청년·여성리더 등 농업인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 기여

고창군이 12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심덕섭 대학장(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입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한국웃음치료연구소 조정호 원장을 초빙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 모두가 행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 이후에는 과장별 오리엔테이션과 학생자치회 구성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농촌개발대학은 연 20회 교육의 정규과정으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희망학과 3개과정을 개설해 3~11월까지 전문이론과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개설과정으로 △스마트청년과(47명)=스마트 청년농업인 집중육성으로 미래농업 모델구축 △여성리더과(43명)로 구분된다.



고창군이 12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명)=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및 리더십 함양 △복분자과(65명)=복분자 재배 환경 개선 등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습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농촌개발대학은 2005년 첫 개교이후 278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복분자, 수박, 멜론 등 지

역 농특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고창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젊고 활기찬 고창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 589대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589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승용 281대, 화물 303대, 승합 5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1개월 이상 정읍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대상자는 차량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 자본민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65기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 등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공포해 친환경 차량의 구매와 운행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했고, 시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에 친환경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비 50%를 감면하고, 충전을 위해 주차할 때에는 2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